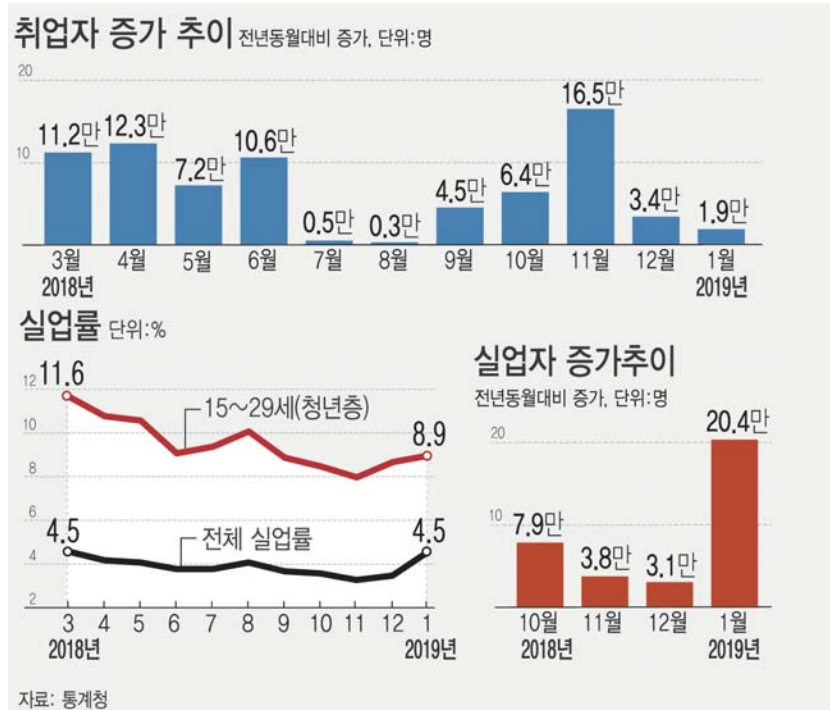


“반도체 위기에 제조업 고용도 흔들”

# 1월 체감실업률 역대 최대

통계청, ‘2019년 1월 고용동향’ 발표

취업자수 1.9만명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폭증  
실업자수 122.4만명...1월 기준 2000년 1월 이후 최고  
제조업 고용 17만명 줄어...“반도체 관련 전자 부품 ↓”  
건설업 고용 29개월 만에 후퇴...자영업자 한파도 여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난달 취업자가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7월 5000명, 8월 3000명을 기록하며 1만명대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남자 취업자가 1510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 줄었지만 여자 취업자는 11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26만4000명, 50대에서 4만4000명, 20대에서 3만4000명 늘어난 반면 40대에서 16만6000명, 30대에서 12만6000명이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7만9000명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 농림어업(1만7000명), 정보통신업(9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9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늘면서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자가 늘고 있

는 모양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17만명이나 줄었다. 2017년 1월 17만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지난달 고용 부진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영향이크다. 제조업에서 기저효과가 특히 컸다”며 “컴퓨터, 통신, 영상 장비들과 반도체 완성품을 포함하는 전자 부품 등에서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서도 1만9000명이 줄었는데 이는 2016년 8월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이다. 감소폭은 2016년 6월(-3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도·소매업에선 지난해 11월(-6만9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인 6만7000명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4만명이 줄었다. 다만 이 두 업종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면서 감소 폭이 차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 차이도 유사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1만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7만6000명) 등은 증가했지만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8만4000명), 단순노무종사자

(-1만8000명) 등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9000명 늘었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통계 당국은 분석했다.

임용근로자도 2만5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임시근로자는 21만2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7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모두 1만2000명씩 줄었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에서의 부진이 자영업자 고용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1월(59.1%)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 기록한 것이다.

고용률은 30~50대에서 모두 하락했지만 60세 이상(0.8%포인트)과 15~29세 청년층(0.7%포인트)에서는 올랐다.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4000명(20.0%) 증가했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1월(123만2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 폭으로는 2014년 4월 20만7000명 늘어난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실업자가 13만9000명 늘었다. 통상 2월에 진행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 모집이 앞당겨져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혔던 노인 인구가 실업자로 포착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1월(5.0%) 이후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확장실업률)은 역대 최대치인 13.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2%로 1월 기준 역대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0.1%) 증가했다. 재학·수강(-15만8000명)이나 가사(-6만5000명) 등을 영향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줄었으나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인구 증가로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13만3000명 늘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하는 잠재구직자는 186만9000명으로 2015년 1월(186만9000명) 이후 가장 높았다.

## ‘나주배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대상자 모집...22일 마감

나주시, 선정업체에 기술 전수·마케팅 등 혜택



나주를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인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나주시가 관광객과 일반 소비자를 겨냥해 지역 특산물인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나주배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대

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앞서 나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나주배를 가공해 만든 제과류 제조 기술을 민간 업체에 전수하고 대량 상품화를 위해 추진된다.

나주시는 ‘나주배 구움 빵’의 1종에 대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전수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은 나주시에 제과점 또는 식품 제조가 공업체로 등록 된 사업자여야 한다.

나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1곳)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5000만원(자부담 20%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기자재 구입, 마케팅 비용 등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농특산물인 나주배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힘써, 과수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사상 최대’ 실적 낸 금융사들 작년 이자이익 30조원 ‘육박’

국내 4대 금융지주사의 순이자이익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각 금융사들은 하나같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이자이익은 28조7734억원으로 1년 전 수준(26조4018억원)보다 2조3718억원(9%) 증가했다. 신한금융이 7371억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KB금융이 6585억원 증가해 뒤를 이었다.

금융사의 이자이익이 확대된 것은 은행권에서 막대하게 불어난 가계대출이 수익을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이에 은행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1년 전보다 크게 개선됐다. 국민은행의 NIM은 1.71%로 1년 전 수준을 유지했으나 우리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1.52%로 전년말(1.47%)보다 0.05%p 올랐고 신한(1.58→1.61%) 하나(1.53→1.58%) 등도 줄줄이 상승했다. 4대 은행들은 지난해 2조782억원에 달하는 이자이익을 거둬들였다.

지주사의 비이자 이익은 6조3367

억원으로 전년(7조476억원)보다 7109억원(10%)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금융사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비이자 부문 중에서 수수료 이익은 7조527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00억원(10%) 증가했다. 금융사들이 자산관리 부문에 역량을 쏟은 성과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에서도 수익성 확대가 두드러졌다. 신한금융 계열사 중 금융투자사 수익이 25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8% 성장했고, 캐피탈도 전년 대비 순이익이 18% 증가한 1034억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도 캐피탈과 생명 실적이 각각 33.2%, 41.8% 급증했다.

덕분에 4대 금융사들은 지난해 10조48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희망 퇴직금 등 일회성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감소한 KB금융을 제외하고는 각 금융사들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일궈냈다.

그러나 올해 금융사들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 여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 등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자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성공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예비)청년창업자를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전국 17개 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1,000여명을 모집하며, 지역내에서는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6명, 50명을 모집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를 창업교육부터 시제품제작, 해외 진출, 투자 등 사업과 전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 CEO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기술경력자의 경우 만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1년간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사업과 지원금과 창업 인프라(사무공간과 제품 제작 관련 장비 등), 전문가 코칭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은홍 기자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